

호남석유화학, 중동 진출 1년 연기

신년 인사회에서 카타르 공장 연기 밝혀 ... 중동 관련 파견인력 철수

호남석유화학 정범식 회장이 1월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카타르 공장의 완공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년 인사회에는 호남석유화학 외에도 고홍식 삼성토탈 사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이선규 대한유화 사장 등 석유화학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범식 사장은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돌발 변수가 많아 중동 카타르 프로젝트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타르 공장의 완공시기는 2012년에서 2013년 이후로 1년 정도 연기될 전망으로 호남석유화학은 최근 카타르와 영국 등에 파견한 인력을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원준(한화석유화학 사장)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은 “현재의 위기는 전 세계 석유화학산업이 함께 겪는 것으로 국내시장에는 오히려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해외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등 수출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2009년 석유화학 수출은 312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09>